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홈택스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 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화면 확 바뀐다... 통합창구서 국세증명 발급, 가산세도 자동계산

국세청이 올 하반기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챗봇 기능을 정교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가동을 통해 홈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

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대화형 신청방식 및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선하고, 홈택스 포털 개선해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 화면 재배치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챗봇의 경우 안내문구를 개선하고, 처리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확대한다.

### 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5000만원까 지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안내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불복청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심사사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신속 정확한 불복처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 사건까지 무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